

동국대,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

10일 도서관 IF존 개관... 첨단 교육시설 설치

스마트한 캠퍼스 환경 마련
"교육의 질 향상 효과 기대"

동국대(총장 보광)가 첨단시설을 통한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동국대는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개관식을 갖는 중앙도서관(관장 신성현) 창의 학습 공간 IF(Information Forest, 이하 IF) Zone을 마지막으로 총 4개 건물의 첨단 교육시설 구축을 완료했다.

신성현 중앙도서관장은 "학생들을 위한 힐링과 창의 공간으로 조성된 IF Zone은 동국대 중앙도서관의 모토인 '정보의 숲'을 만들기 위해 산책로를 형상화했다. 2014년 조성된 컨퍼런스 공간 IC(Information Commons) Zone과 함께, 학생들의 여가와 학습, 문화생활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IF Zone은 기존 멀티미디어실을 개조, 다매체 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다양한 첨단기기를 설치했다. 프레젠테이션과 오의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동시에 녹화 및 리빙가 가능한 '프레젠테이션 룸'과 멀티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편집 코너'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AV Room과 노트

북 존을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등 최첨단 디지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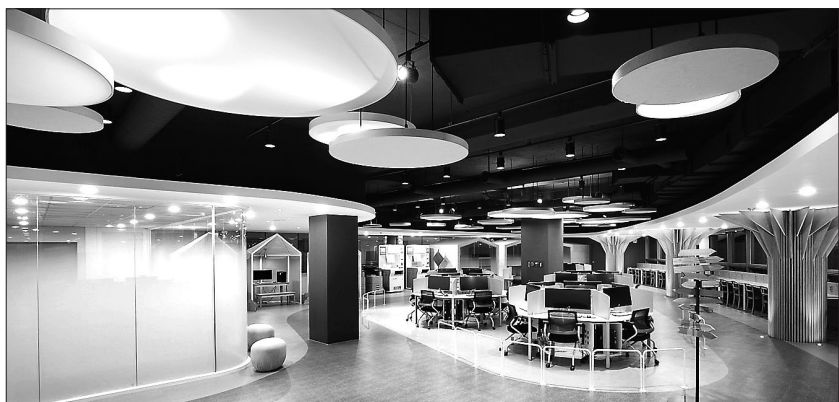
교수학습개발센터(센터장 이한주)에는 다목적 활용 가능한 '첨단 모니터실'이 들어섰다. 촬영 및 상영기기가 갖춰져 강의촬영 및 모니터링, 교수법 컨설팅 등이 가능해져 교수-학습 지원서비스의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공간을 확충해 교수-학생 간 컨설팅 공간 및 교수법 전용 세미나실을 넉넉히 확보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PBL(Problem Based Learning, 문제해결을 기반으로 한 학습방법) 강의실이 완공돼 새 학기부터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자책 판과 음향장비를 구비해 선진화된 강의를 가능케 했고, 원형 테이블과 여러 대의 이동식 화이트보드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동국대는 "ACE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자율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스마트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 및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는 작년 7월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교육부의 ACE 사업 수도권 대규모 부문에 선정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도서관에 문을 연 창의학습 공간 IF(Information Forest) Zone의 모습.

불교 고전어로 본 문화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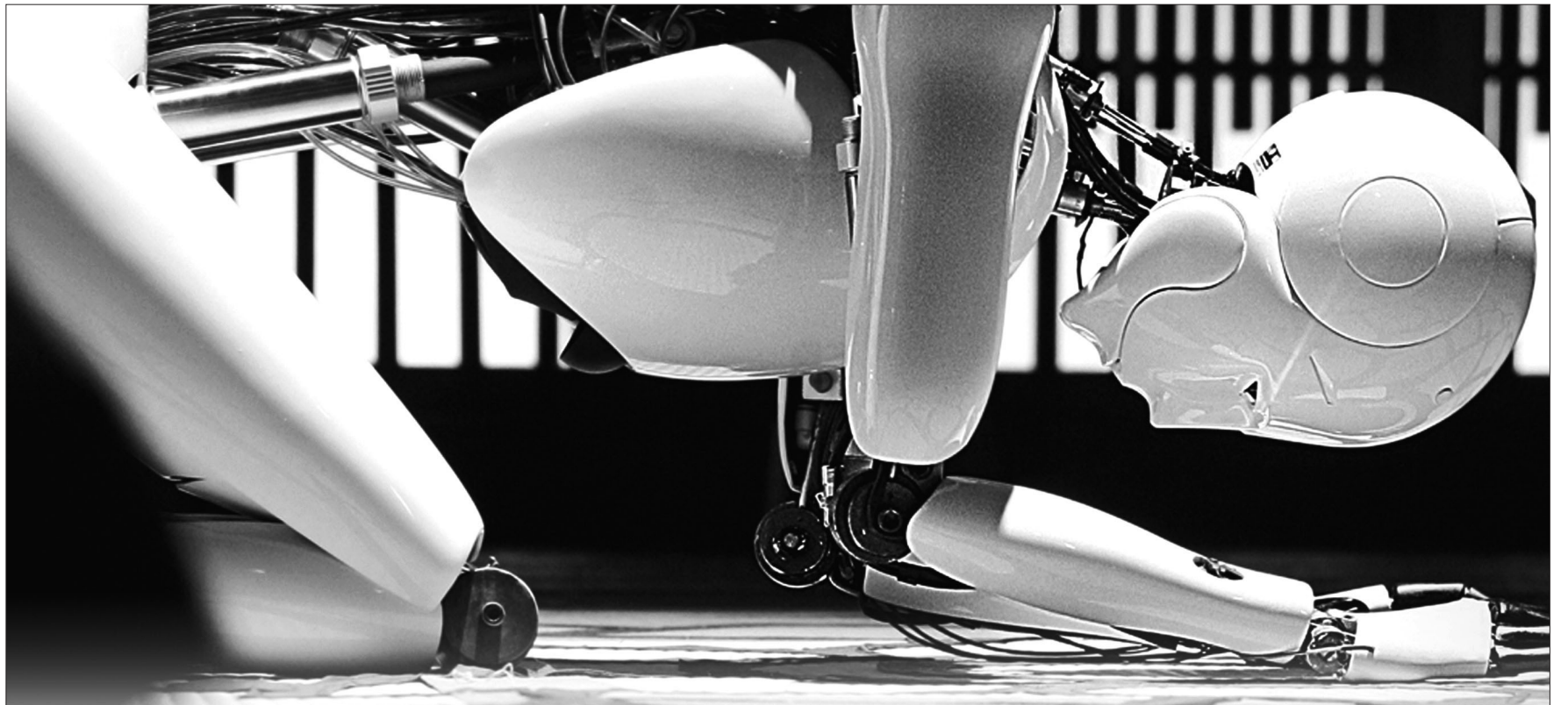
금강대 불문연 '불교고전어' 주제 콜로키움

8월 24일까지 12차례 개최

금강대(총장 한광수) 불교문화연구소가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의 연구'를 주제로 콜로키움(세미나)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금강대 본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3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12차례 열린다.

주요 논제로는 △김지연 금강대 HK 연구교수의 '다라니의 전래와 동아시아적 변용' △정상교 동경대 박사의 '반야승론 제9장의 독자부설-푸드갈라 정의의 다양성에 관하여' △이케다 마사노리 금강대 HK 연구교수의 '중국에서 아비달마교리의 수용과 변천'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유니버시티 영화 <인류멸망보고서> 2번째 에피소드 '천상의 피조물'의 포스터 중 일부.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있는 로봇은 인명 스님으로 불리며 대중의 추앙을 받는다. 인공지능 로봇이 더 인간답게 분별없는 사고와 통찰을 한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진화하는 인공지능에겐 '佛性' 있을까

미래 과학기술과 불교 - ① 불교적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사람들은 부처님 앞에서 연등을 벌인다. RU-4라는 이름의 로봇은 깨달은 자인가 아니면 단순한 프로그램 오류로 폐기되어야 할 로봇인가를 놓고, 갈등의 클라이막스에서 부처님 앞에 좌정한 인명이라는 범명까지 받은 로봇은 "인간이여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모든 것은 공(空)합니다. 이제 스스로를 거두려 합니다"라는 마지막 설법을 남긴 채 스스로 기동을 정지한다. 마치 인간 교수가 스스로 열반에 들 듯이.

이는 한국의 유니버시티 영화 <인류멸망보고서(2011)> 두 번째 에피소드 '천상의 피조물'의 한 장면이다. 최근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와 한국 바둑 최고수 중 한 명인 이세돌 9단의 대국이 화제가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알파고'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변수를 감안해 내는 추론과 직관까지 보여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공지능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 현재 불교계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논문으로는 2008년 조계종 승가대학 학인 논문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던 보일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의 '인공지능로봇의 불성 연구- 인간과 기계의 연기성을 중심으로

로' 정도이며, 도서로는 지난해 주목을 받았던 지승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의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가 유일하다. 이밖에도 월간지 <불교와 문화>에 이상현 세종대 교수가 '과학기술과 불교'를 연재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글을 2회 기술하기도 했다.

이세돌과 바둑 대국 벌인 알파고 인간의 직관·추론 영역에 이르러 A.I 대한 불교적 해석 연구 부족 "감정·자아 등 A.I는 아직 못 가져 깨달음 영역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들을 내용을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에게는 불성(佛性)이 있느냐'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의 두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보일 스님은 자신의 논문에서 인공지능 로봇에 불성이 없다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유사(類似)인격체인 인공지능 로봇의

불성을 연기·공·중도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인공지능 로봇에게 불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과의 연기성을 파악하다 보면 중국에는 '나는 누구인가'로 귀결된다고 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지승도 교수는 자신의 책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에서 '인공지능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느냐'에 대해 '자아'라는 개념에 집중했다. 지 교수는 "깨달음이란 법을 통찰하는 것, 자아가 본래 없다는 사실, 존재란 하나의 개념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인데, 로봇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적어도 '자아'의 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인공지능이 깨달음 영역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우희중 서울대 교수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깨달음은 무명(無明)함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철저히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에게 무명·망각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인공지능에게 불성과 깨달음을 말하는 것은 아직은 단언컨대 이르다"고 말했다. 고영성 동국대 교수는 "대승불교에서는 불성의 개념이 확대돼 무정물들도 성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인공지능은 범주가 다르다"며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밍된 것이다. 입력된 프로그램은 조작된 분별적 요소이다. 이를 기반한 인공지능은 아무리 발전을 거듭한다고 해도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과학이 가져올 번뇌, 경계해야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은 상이했지만 과학 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번뇌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희중 교수는 "알파고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해 우리는 막연한 환상을 갖는다"면서 "이것들이 가져올 번뇌와 고통에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언제나 과학 기술은 양날의 칼날과 같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일 스님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자본의 확장을 의미하지는 않는지, 인간이 자본의 감각에 봉사하는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중도적 안목의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현대과학이 제기하는 많은 문제점의 해결책은 과학 내부가 아니라 불교의 연기론에서 비롯되는 통찰적인 사고방식에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대 교수의 연재물 '과학 기술과 불교'는 조금 더 실천적 제안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이상현 교수는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공지능이 수단으로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길은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 되는 고통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불교적 입장에서 인공지능 연구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바른 목적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경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학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 원서접수 : 2016년 3월 31일까지
- ◆ 개강일시 :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봉 원효성사 열반성지 골굴사(혈사) 행 12처 석굴사원 원형복원을 위한 마애여래불 다례제



신라 진년의 아름다운 미소와 섬세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골굴사 마애여래불(보물 제 581호)

산곡과 동천에 무량광의 밝은 빛을 비추며 기적을 행하던 영험한 신앙의 대상이었던 골굴사 마애여래불의 기피와 기적을 찬탄하고 불자님들이 직접 공양을 올리는 의식인 육법공양 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다례제는 원효성사의 마지막 훈이 깃든 골굴사(혈사)에서 열림과 동시에 인도석굴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내 유일 12처 석굴사원의 원형 복원을 알리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공양의 공덕을 통해서 불자님과 불자님 가정에 마애여래불의 이적과 성취가 함께하길 기원하는 이번 다례제는 경주지역 불교문화의 한 장을 형성하고, 골굴사와 마애여래불의 신앙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양시킬 것입니다.

많은 대중들의 동참으로 한해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이번 다례제에 동참하시어 수승공덕 성취하시길 발원합니다.

◆ 상주 기도안내 : 원효성사의 열반지인 골굴사에서 상주하며, 기적과 치유의 신비를 나누던 마애여래불전에 스님들과 함께 백일기도, 천일기도를 가행정진하실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일시 : 불기 2660년(2016) 3월 26일 오전 10시
장소 : 골굴사 대적광전 문의 : 054-744-1689
내용 : 마애여래불 다례제 - 육법공양 / 대적광전 개금불사 회향 점안식 / 진달래 화전 템플스테이

원효성사 열반성지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혈사) 주지 적운 합장